

# 기술표준뉴스

##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표준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 2009 세계 표준의 날 ]

「2009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이 정운찬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10월 14일(수) 오전 10시 건설회관에서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계 인사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세계 3대 표준화기구인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맹)는 1970년부터 10월 14일을 「세계 표준의 날」로 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이날을 기념

하기 위한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표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매년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기념행사로 개최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

3대 국제표준화기구는 매년 표준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이슈를 세계 표준의 날 주제로 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제는 “표준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Tackling climate change through standards)”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성장이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며, 모든 국가가 이행할 수 있는 공통의 규범으로 국제표준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가표준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되었으며, 훈·포장(2), 대통령표창(4), 국무총리표창(5) 등 31명, 12개 기업·단체가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유공자부문에서 산업 설비의 신뢰성 확보기술의 국제표준화로 부품소재 세계시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한 권동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훈

장을, 단체부문에서 Wibro 등 이동통신 및 멀티미디어분야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로 미래 성장동력분야 세계시장을 리드하며 국내산업을 견인한 공로로 삼성전자(주)DMC연구소와 전기모터, 공공배전 시스템 등 전기전자분야의 국가표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지멘스(주)가 각각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운찬 총리는 치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중심에 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 녹색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는 '그린 스탠더드', '생활공간표준'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표준화 사례에 대한 전시와 표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세계 표준의 역사와 우리나라 표준의 역사전' 등이 마련되었다.

## 녹색산업 청정에너지, 수소분야 국제표준화 총회 한국에서 첫 회의

### 수소경제로의 전환, 그 도약을 위한 표준화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가장 유력한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수소기술의 국제표준화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이번 수소기술 국제표준화 총회에서는 수소 생산기술, 저장기술, 수소연료 품질 등에 관한 표준화 진행현황이 논의된다.

기술표준원은 제18차 수소기술(Hydrogen Technology) 국제표준화 총회(ISO/TC197) 및 작업반회의를 10월 12일(월)부터 10월 15일(목)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아울러 표준화 회의와 연계하여 "2009 녹색에너지 대전"이 10월 10일(토)부터 10월 17일(토)까지(코엑스)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수소는 기술개발을 통해 만들어지는 에너지이다. 에너지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기술 그 자체가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연료전지분야에 매년 5조 원 이상의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에너지고갈과 환경오염을 대비한 미래 기술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수소경제를 향한 로드맵을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소의 제조, 이용, 저장 및 안전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증과 보급,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ISO/TC197(수소기술)은 1990년에 설립된 수소분야 표준화 기술위원회로 올해로 제18차 회의가 된다.

TC197에서는 수소생산(WG8, WG9), 저장

(WG6, WG10), 수소스테이션(WG5, WG11), 수소연료품질(WG12), 수소감지기(WG13) 및 수소 안전에 관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ISO/TR 15916:2004(수소 시스템의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 사항) 등 총 12종의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이 중 4종이 KS로 부합화 되고 2종은 올해 추가 제정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2006년과 2007년 수소·연료전지 표준화 과제를 진행 중인 한국정밀화학진흥회를 중심으로 민간기관 차원의 「한중일 국제표준화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수소·연료전지분야에 대한 한·중·일 간 기술교류와 표준화 활동에 관해서 논의 하였다.

일본은 수소·연료전지분야에서 신규표준을 가장 활발히 제안하고 있으며, 중국은 2006년 이후 꾸준히 표준화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수소분야는 전통적으로 캐나다가 의장, 간사 및 작업반을 주도하고 있으나, 한중일 협력강화를 통해 아시아에서도 수소분야 국제표준을 주도

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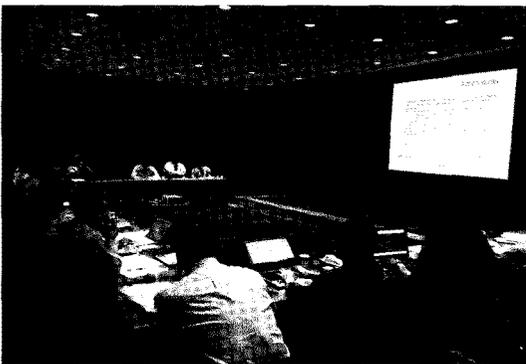
기술표준원은 이번 회의 유치를 통해 국내 수소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고,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국제표준화 부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SW 품질평가 국제표준 크게 강화된다.

### - SW 제품 품질평가 및 테스트링 절차 국제표준 설명회 개최 -

기술표준원은 미래성장 동력산업이며 IT 융합의 핵심기반 기술로 사용되는 SW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SW 품질평가 분야 국제표준이 크게 강화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SW 제품의 품질 평가를 위하여 GS 인증 등에 활용되었던 3종의 국제표준(ISO/IEC9126, 14598, 12119)이 개정 보완되어 "SW 제품의 품질관리, 품질기준 및 요구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국제표준(ISO/IEC25000)으로 제정되고 있으며, SW 테스트링 절차를 규정한 SW 테스트 프로세스 국제표준(ISO/IEC29119)이 "기본 원리 및 테스트링 기법" 등 주요 기술적 내용으로 새롭게 제정되고 있다.



## 기술표준뉴스

※ GS 인증제도 : 국산 SW 품질 향상 및 국내 SW 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개발한 한국형 평가모델 ('09.6월 현재 1,116건 인증)

※ 국제표준(ISO/IEC12119) : SW 테스트 프로세스의 기본 원리 및 개념, 용어 및 테스트 기법 등의 기술을 규정한 국제표준

최근, 급속한 IT 기술의 융복합화로 SW 테스트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SW 테스트 시장 규모도 '06년 1억 830만 달러에서 '09년에는 1억 5,240만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시장 성장과 함께 SW 품질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할 경우, 국산 SW 제품 품질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어 수출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는 SW 품질의 객관적 지표가 되는 국제표준이 국내 산업계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SW 제품품질 평가 및 테스트 절차 국제표준 설명회"를 오는 10월 14일(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개최하고, 우리나라 SW 관련 업계의 국제표준화 대응 능력 향상과 품질 향상 기반을 마련하여 SW 기술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 기술·표준분야 아세안 교육 지원 정상 궤도 진입

#### 기술·표준 교육 올해로 2회째, 작년에 비해 향상된 수준으로 치뤄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기술·표준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 시행되었다.

이번 교육과정은 아세안 9개국(브루나이는 불참)의 관련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등 19명이 참석하여 지난 19일부터 9박10일 간의 일정으로 추진되었는데, 이번 교육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세안 국가 순방 및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과 시기를 같이하여 아세안 국가에 대한 교육지원의 의미를 더 한다.

※참여국가 :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아세안 10국 중 9개국

※이들 국가는 섬유 산업이 발전 중이고, 국제 환경 규제에 능동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섬유제품 시험인증 교육을,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환경유해물질 분석 교육을 각각 시행함

동 교육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세안측에 제공되는 교육 사업으로, 양측간 시험분석 능력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업이다.

많은 아세안 국가들은 제품의 생산 능력은 확보하고 있으나 품질관리에 필수적인 시험·분석의 수준은 더 향상 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기술표준원은 매년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 선정 시 아세안 각국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교육의 성과가 인정되어 금년 교육일정과 예산이 지난해 보다 증가되어 향상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였다.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은 '05년 서명되어 '07년 6월1일 발효되었으며, 이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현재 21개 분야에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며, 매년 아세안 측과 협의를 통해 경제 협력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고 있으며, 경제 협력 사업 중 기술·표준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연구 능력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원을 계속 할 방침이다.

동 교육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의 시험방법과 표준을 습득함으로써 우리기술이 세계로 확산됨은 물론, 거대 시장으로 부상 중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우호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 기록경영시스템표준” 인증제도가 도입될 예정

회사에 출근하여 매일 작성하는 수많은 보고서와 문서에도 품질경영(ISO 9000) 및 환경경영(ISO 14000)과 같은 국제기록경영인증제도(ISO30200)가 '11년에 도입될 예정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국제컨퍼런스가 10월8일 63빌딩에서 개최되었다.

현재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중인 국제기록경영시스템표준(ISO 30200: Management System Standard for Records)은 “기록”이 조직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목표성취 및 성과를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조직의 업무관련 정보와 증빙 기록을 신뢰성 있게 관리하여 기



## 기술표준뉴스

록경영을 통한 지식경영 달성, 업무연속성 유지 및 기록관리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국내외 기록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 기록관리 실무자에게 “국제 기록경영시스템표준”의 제정 의미와 파급효과 등을 전파하고 국제기록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사전에 인지시켜 향후 이를 대비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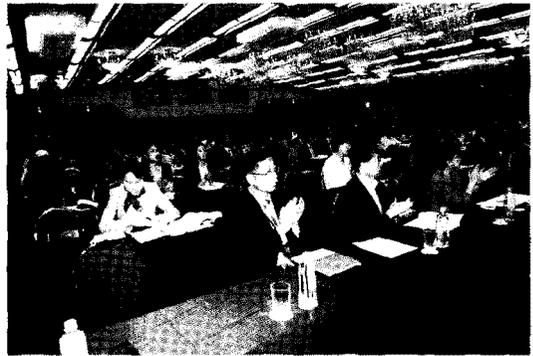
미국, 중국, 호주 등은 인증제도를 도입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ISO 9000/14000 인증제도 도입 시 한 발 늦은 대응으로 외국계 인증기관에 국내시장을 내준 선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어서 이번 컨퍼런스 개최는 국내 관련업계 내의 정보 공유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사리가 되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이 핵심지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되며, 조직의 비전과 전략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어떻게 확보·관리하는가가 재무자산의 관리만큼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특히 업무처리가 컴퓨터를 활용한 IT기반으로 이루어지면서 업무 결과물로 생산되는 기록생산 및 관리체계의 효율화가 조직 자산관리에 중요함을 인식하여 글로벌 기업체는 기록경영을 경영도구로 적극 활용 중에 있다.

향후 인증제도가 도입이 되면 인증 획득 기업이

보유한 기록문서는 국제적 공신력을 인정받게 돼서 우리기업의 해외 공신력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NEP제품 구매실적의 신뢰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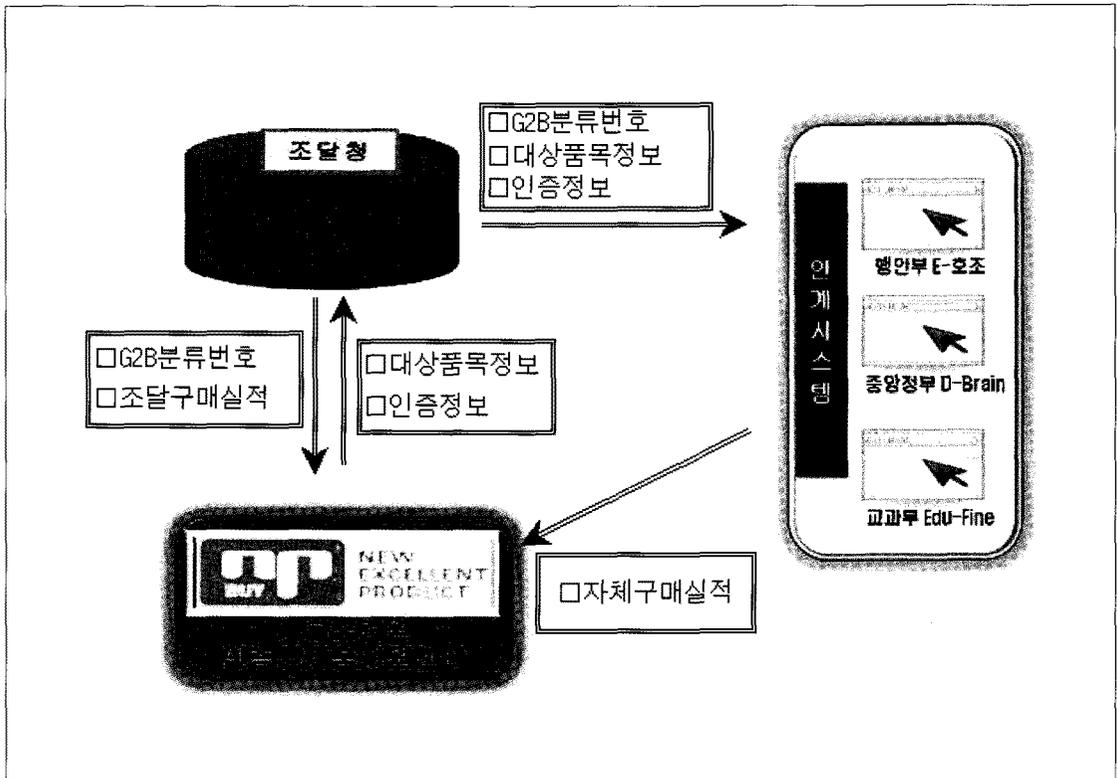
### - BuyNP시스템과 정부기관의 회계관리 시스템을 연계 -

※ NEP인증제품 정보사이트(BuyNP)는 NEP인증제품 홍보 및 공공구매 실적조사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임  
기술표준원은 NEP인증 정보사이트(BuyNP)와 조달청,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회계관리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NEP인증제품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 및

구매실적의 자동 집계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가 인증 신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실적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NEP(New Excellent Products)인증제도는 국내에서 개발한 최고의 신제품을 정부가 인증하여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이며, "공공기관의 구매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으면 해당 품목의 20%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는 의무구매제도를 '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구매실적자료의 신뢰성 부족,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금년부터는 NEP인증제품의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인증신제품 구매



실적 자료의 신뢰성 확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또한,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구매담당 및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순회실명화, 지역별 워크숍 등의 결과로 인증신제품 공공기관 구매실적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의 정착을 통해 중소기업 개발 신제품의 초기판로 확대 및 기술개발촉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NEP인증제품 구매실적이 큰 공공기관을 선별하여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술표준 2009.11

